



장정우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서울, 한강에서 꽃피우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우연히 보게 된 한국영화 <마부>에는 지난한 삶의 무게를 마차에 싣고 살아가던 우리네 아버지 춘삼이 자식들의 눈을 피해 가슴앓이 사랑을 하던 수원대와 한강 백사장에서 짧지만 달콤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강은 그에게 말 못하는 딸 옥례를 떠나보내야 했던 가슴 아픈 곳이기도 하지만, 애뜻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곳이기도 했다. 오래전 한강은 우리에게 그런 곳이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폭풍우처럼 휘몰아친 근대 도시개발의 물결 속에서 한강은 파헤쳐졌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멀어져 갔다. 강 양쪽으로 둘러쳐진 강변도로의 존재는 평범한, 너 무도 평범한 우리가 한강에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가 남겨놓았던 삶의 기쁨과 애환의 발자국은 한강 백사장과 함께 뿔뿔이 사라져버렸다.

강길 따라 사람의 정취가 묻어나는 따뜻한 도시 서울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오랜 세월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을 보여주었다. 인간 중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근대적인 도시개발에서 이제는 생태, 환경, 문화, 복지 등이 모두 어우러져 도시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창조도시까지 변화되어 왔다.

강을 중심으로 남북간 지역차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이뤄낸 로테르담의 카펜주드, 도시 중심을 흐르는 무어강을 중심으로 신·구시가지 지역간 차이를 극복하고 도시통합을 이뤄낸 오스트리아 그라츠,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브리스베인강을 따라 수상교통의 활성화를 이뤄낸 호주 브리스베인, 돈강 계곡(Don River Valley) 주변 하천을

따라 들어선 여러 공원들과 하천변 녹지를 연결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워터프런트 환경 복원과 연결을 통해 녹지망 체계를 구축해낸 캐나다 토론토 등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수변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를 발판으로 한 도시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과 직·간접으로 만나는 14개 지천의 생태복원 작업을 통해 서울시 전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생태 네트워크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람이 살고,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서울시가 민선 4기 때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한강르네상스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한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한강을 떠났던 또는 힘겹게 한강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보다 편안하게 한강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서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오래 전 시민들이 특별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피서를 즐길 수 있어 즐겨 찾은 뚝섬유원지의 추억을, 난초와 지초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아름다운 꽃섬 난지도의 향기를, 치열한 살아가기의 현상이었던 나루터들의 열정을 되살려 한강에서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는 창조도시 서울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강르네상스는 세계 그 어느 도시에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도심 관통형 강인 '한강'이 가진 문화·경제적 가치를 새롭게 찾아내어 서울의 도시브랜드를 창조해냄으로써 천만 시민이 자랑스러워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관광지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그 첫 시작으로 한강 생태계를 보전, 회복하고자 강서습지

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복원지, 여의도새강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등을 조성해 그동안 도심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샬'(강서),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흰꼬리수리', '참수리'(밤섬, 광나루), 선유도공원에서 대규모로 발견되고 있는 맹꽂이 등이 한강을 다시 찾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한 생태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강변 생태계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강변 생태환경 개선으로 인해 건전한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밤섬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세계적인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켜나가고 있다. 생태환경 회복을 위해 그리고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더욱 더 친밀하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강르네상스는 현재도 이촌·잠실·양화한강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집중·조성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되살아나는 생태계와 함께 시민들의 발걸음을 한강으로 되돌리고자 한강르네상스는 그간 한강공원 재조성, 자전거도로·산책로 분리조성 등 다채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해내고, 이곳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오고 있다.

우선, 광나루한강공원에서부터 강서습지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따라 이제 시민들은 때론 자전거를 즐기며, 때론 산책을 통해 한강의 사계를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 친수성을 극대화해 수변과 보다 더 가까워진 암사생태공원을 출발해 벼룩시장, 수영장, 수변광장, 전망문화콤플

렉스 등 문화공간이 더욱 보강되어 가족들의 주말 소풍 장소로 사시사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뚝섬한강공원을 지나면 어느새 세계 최장 규모의 낙하분수인 '달빛무지개분수'를 만나 음악과 시원한 분수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여의도 플로팅



〈그림 1〉 한강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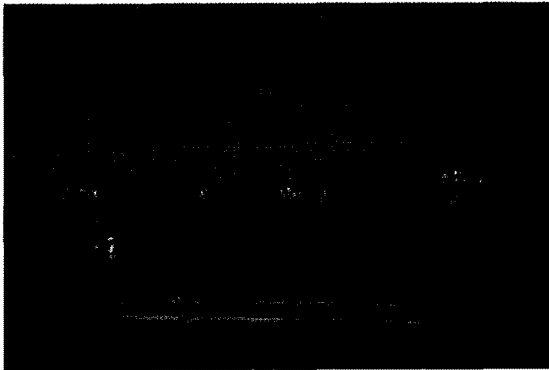
스테이지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즐긴 후 생태습지가 살아 숨쉬는 난지한강공원을 거치면 어느새 맹꽂이의 천국 강서습지생태공원에 다다르게 된다. 각 공원마다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생태프로그램까지 마련되어 있어 도시 어린이들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동식물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한강은 다시 우리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

올 가을엔 자전거 타고 한강을 달리며 추억만들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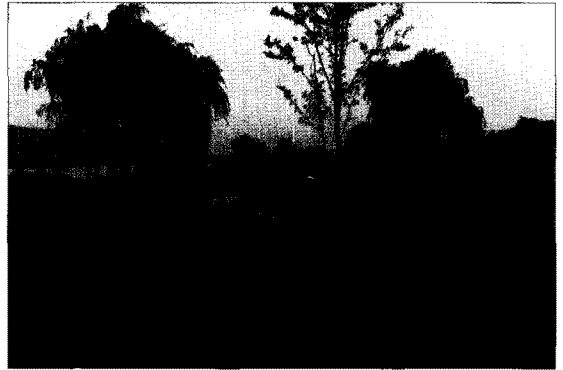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막았던 치수에 만 급했기에 삭막한 콘크리트 호안으로 기억되고 있는 한강.

그 한강에 다시금 생태계가 살아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가족·연인간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다. 강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곳이어야 하고,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는 곳이어야 한다. 강은 사람이 나고 생명이 나던 인류의 시작이고 역사이기에.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나의 도시, 서울. 그 어느 곳에서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강. 한강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으로 넘쳐나게 될 한강이 지금 이 순간 한강르네상스와 함께 되살아나고 있다. ●



〈그림 2〉 반포한강공원 서래섬 유채꽃



〈그림 3〉 암사생태공원



〈그림 4〉 양화한강공원 물억새길



〈그림 5〉 강서습지생태공원 겨울철새